

무사시보 벤케이

역사적인 일본 인물 가운데 가장 전설적인 존재인 무사시보 벤케이(1155~1189)는 청년 시절에 엔교지 절에서 살며 수행했습니다. 벤케이는 초인적인 힘으로 이름을 떨친 승병으로서 많은 문학작품과 가부키 공연 목록에도 영웅적인 인물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벤케이는 종종 용기와 강한 충성심을 지닌 인물로 묘사됩니다. 올곧은 성격인 반면, 성질이 급하고 폭력적인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학문에 대한 벤케이의 충실한 태도는 다른 젊은 승려들의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엔교지 절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특히 인상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벤케이가 자고 있는 사이에 시나노보 가이엔이라는 승려가 먹으로 벤케이의 얼굴에 불쾌한 말을 썼다고 합니다. 벤케이가 잠에서 깨자 젊은 승려들이 비웃었습니다. 벤케이는 가까이 있는 우물로 달려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얼굴을 나막신 바닥에 비유당한 굴욕에 격노한 벤케이는 절의 건물을 마구 때려부숴했습니다.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벤케이가 평소에 자신을 비취보기 위해 사용했다고 하는 우물이 마니텐(摩尼殿)에서 가이산도(開山堂)로 이어지는 길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원에는 벤케이와 관계 있는 다른 물건도 많이 보존되어 있어서 벤케이가 공부했다는 책상 등이 지키도(食堂) 2층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벤케이가 자신의 힘을 시험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두 개의 커다란 바위(벤케이의 공깃돌)가 있습니다.